

미국, 북한 해외자금줄 고배 바짝 진다

노동자 체류국가 명단 작성 강제노동으로 인권유린 지적 중국 등 23개국에 개선 요구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말인데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배를 바짝 죄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직접적인 압박 제재외는 별개로 미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인권압박을 통해 다각도의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진전전략보고서’의 핵심은 미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 체류국가 명단을 종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정조준한 것이다. 비록 5쪽 자리 문건이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의미가 절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적시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앙골라, 베마(미얀마),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नेपाल, 나이지리아, 카타르,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총 23개국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동참해 줄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들 역시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971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

가 집권한 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몰타가 최근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하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폴란드와 몰타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터라 이번 보고서의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차원에서도 이미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상태다. 토머스 오헤아 키타나 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일 크리스틴 정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수석고문과 의 첫 인터뷰에서 북한 내 주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도 주된 관심사라고 말해 유엔이 직접 실태 조사 및 개선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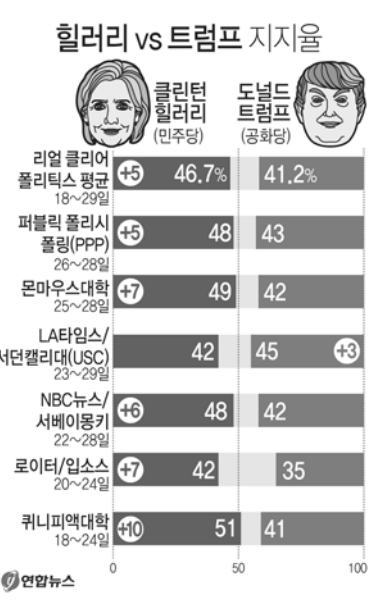
북한이 이달 초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북한 근로자들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폭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한 것도 단순히 미국뿐 아니라 EU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한 데다가 이 자금이 정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매체 바이스(VICE) 독일판은 지난 5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국어 연구 교수 렌코 브로커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유렵에서 강제 노역하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매년 2조 원 안팎을 송금받는다고 보도했다.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격차 좁혀져

클린턴재단-정부 유착 논란 탓



미국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재단과 국무부 간 유착 논란, 이메일 스캔들 재부상 등 클린턴을 둘러싼 악재가 연거푸 나온 반면, 트럼프는 자승수가 되곤 했던 막말과 비하 발언을 자제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 NBC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몬키가 지난 22~28일 조사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은 48%의 지지율로, 42%에 그친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지지율 격차는 전주(8%포인트)보다는 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클린턴의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나온 퍼블릭 폴리스 폴링(PPP) 여론조사(26~28일)를 보면, 자유당 캐리 존슨,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까지 포함한 4자 대결 구도에서 클린턴(42%)은 트럼프(37%)에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은 양자대결에서도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43%)에 동일한 격차로 리드를 지켰다.

두 후보는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나란히 2%포인트씩 지지율이 내려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한 달 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한 조사에서는 지난달 양당 전당대회 이후 줄곧 열세였던 트럼프

가 판세를 뒤집고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LA타임스와 서던캘리포니아대(USC)의 공동 조사에서, 트럼프는 이날 현재 45.1%의 지지율을 기록해, 클린턴(42.3%)에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두 기관은 인구분포를 고려해 선정한 3200명의 표본 가운데 하루 300~40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추적조사 방식으로 표심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일 결과를 발표한다.

클린턴은 이 조사에서 지난 24일 45.3%의 지지율로 꼭짓점을 찍은 후 줄곧 내리막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직시절 이메일 스캔들이 다시 불거지고, 그 불명이 클린턴재단으로까지 옮겨붙어 당시 국무부와 재단 사이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부터다.

IS 대변인 알아드나니 미국 공습 중 사망 확인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대변인이자 2인자로 알려진 아부 모하마드 알아드나니(사진)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사망했다고 IS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IS는 알아드나니의 사망 시기와 사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그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아마크통신의 보도 직후 IS도 알아드나니가 알레포에서 군사작전 도중 숨졌다고 보복을 다짐하는 성명을 냈다.

IS는 “IS에는 살보다 죽음을 더 사랑하는 새로운 세대가 있다. 이 세대는 지하드(성전)로 가는 길에서 흔들림 없이 자라나 결연히 보복에 나서기로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알어드나니는 1970년대 후반 시리아 서부 이德利브 타하 수브리 필라하 지역에서 태어나 현재 나이는 37~39세 정도로 알려져 있다. IS에 가담하기 전 알카에다 소속이었던, 2005년 이라크 안바라에서 체포돼 5년간 수감됐고 석방 이후 알바그다디에 충성을 맹세하고 IS에 합류했다.

그는 특히 서방의 ‘외로운 늑대’의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2014년 9월 “IS에 맞서는 미국과 서방의 더러운 불신자를 돌로, 차로, 칼로, 독으로 죽여라”는 그의 연설은 이후 서방에서 일어난 자생적 테러의 촉매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뎀 위헌소 제기”



경찰 발아래 여성은 어떻게 됐을까?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원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최종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파울루에서 호세프 지지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경찰에 의해 진압되고 있다.

상원서 최후변론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상원의 최종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주제 에두아르두 카르도주 전 법무장관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에 대비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은 전날 상원에 출석해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하고 나서 위헌소송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호세프 대통령이 이번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해 탄핵 주도 세력과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통해 정지권이 재정의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탄핵을 당할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

하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쿠데타이자 정권전탈 행위”라고 비난했다.

브라질에서는 과거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위헌소송을 통해 뒤늦게 명예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현 상원의원)은 경제 정책 실패와 부패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탄핵 압박을 받자 1992년 말 사임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대법원은 그에 대한 탄핵 사유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북한, 백두산 관광시설 확충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허룡(和龍)시가 북한과 손잡고 백두산 ‘무봉국제관광특구’(이하 무봉특구)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31일 지린성 여유(관광)국 등에 따르면 허룡시는 관광 종산(崇善)진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활성화한다는 구상 아래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무봉특구 내 온천, 호텔, 승마장 등 관광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무봉특구는 허룡시가 작년 7월 북한과 제휴, 충산진과 접경한 북한 삼지연 국 무봉노동자구 일부지역에 설립된 국제관광특구로 양측은 총 면적 84km² 가운데 1단계로 20km²에 대한 개발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올들어 북한 5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북중관계가 냉각되면서 무봉특구 개발도 답보상태

를 보여왔다.

북한은 허룡시에 1차로 개발한 특구 지역의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50년간 개발권, 경영권, 사용권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무봉특구 개발에 이어 지리적 잇점을 내세워 북한 함경북도 청진 일대에 북중자유무역구를 조성,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드는 야심찬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4월 백두산 동쪽 두만강 발원지 부근에 위치한 무봉특구 설치를 발표한 이후 공동개발사업을 제외한 허룡시와 손잡고 관광특구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한 함경북도·양강도와 허룡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164.5km 구간을 접했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배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뀐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진행 문외한! 저명한 인사들 무수히 있습니다.

公認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3기)	광주교육대학교(1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 2016. 9. 2(금) 08:10(8교편) · 토요일 오전: 2016. 9. 3(토) 08:10(8교편)	· 월요일 오전: 2016. 9. 5(월) 08:10(8교편) · 월요일 오후: 2016. 9. 5(월) 14:10(8교편) · 목요일 오전: 2016. 9. 1(목) 08:10(8교편) · 토요일 오후: 2016. 9. 3(토) 14:10(8교편)
모집기간	2016. 8. 1(월) ~ 9. 3(토)	2016. 8. 1(월) ~ 9. 3(토)
수업기간	2016. 9. 2(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9. 5(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 08:10~13:00 · 오후 14:10~18:00	· 오전 08:10~13:00 · 오후 14:10~18:00
수 강 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공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 전	· 12년제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원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발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기회 부여)	· 12년제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원문 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발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80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8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남구 월산동 원룸3층건물133평 대지74평 방18개 코너위치 건축2003년도 환경양육 ▶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서구 양동 건물45평 대지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1층~지상5층 ▶ **감정가 11억 최저가 6억 (감정가의 45%)**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신상중인근 위치 및 건물취상 ▶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9천**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 토지, 병원, 사옥, 창고부지 매매상담

-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판이아가에서 송창방향 계획관리지역 건물974평 토지 25,392평 ▶ **감정가 74억 최저가 34억원****
- **담양군 월산면 2층전원주택 건물82평 토지211평 주변환경 광주에서 30분거리 ▶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2억4천(45%가액)****
-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주차장인근 근리시설2층 건물253평 토지280평 계획관리지역 ▶ **감정가 8억 최저가 4억4천만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리시설 3층건물306평 대지209평 주차장인근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금매 **동구 금남로 3층근리시설 우리는행복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250평 토지171평 감정가 21억3천 ▶ 최저가 18억7천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